

2020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B책형 재미있고 아주 자세한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제 1) <보기>에서 음의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36) 표준 발음법(제7장 음의 첨가) + 기타 (p.482 ~ 495) p. 483, 484 >

< 보기 > 가. 등용문 나. 한여름 다. 눈요기 라. 송별연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문제 1)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36) 표준 발음법(제7장 음의 첨가) + 기타 (p.482 ~ 495) p. 483, 484 >

◆ 표준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숨-이불[숨:니불] / 홀-이불[혼니불] / 막-일[망닐] / 샅-일[상닐] / 맨-입[맨닙] / 꽃-잎[꼇닙] / 내복-약[내:봉낙] / 한-여름[한너름] / 남존-여비[남존녀비] / 신-여성[신녀성] / 색-연필[생년필] / 직행-열차[지캥열차] / 녹막-염[능망념] / 콩-엿[콩녘] / 담-요[담:뇨] / 눈-요기[눈뇨기] / 영엽-용[영엽농] / 식용-유[시공뉴] / 국민-윤리[궁민눌리] / 밤-웃[밤:눈] >

◆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야금] / 검열[검:넌/거:멸] /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 금융[금:농/그:똥] >

[붙임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리]로 발음한다.

< 들-일[들:릴] / 술-잎[술립] / 설-익다[설릭따] / 물-약[물랏] / 불-여우[불려우] / 서울역[서울력] / 물-엿[물려] / 휘발-유[휘발류] / 유들-유들[유들류들] >

[붙임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11)

< 한 일[한닐] / 옷 입다[온닙다] / 서른여섯[서른녀섯] / 3 연대[삼년대] / 먹은 엿[머근
년] / 할 일[할릴] / 잘 입다[잘립다] / 스물여섯[스물려섯] / 1 연대[일련대] / 먹을 엿[머
글련] >

◆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 6·25[유기오] / 3·1절[사밀절] / 송별-연[송:벼련] / 등-용문[등용문] >

② ㄱ, ㄹ: 위 해설 참조

ㄱ. 등용문: 등용문은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ㄹ. 송별연: 송별연은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ㄴ. 한여름: 한여름은 [한녀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녀’처럼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ㄷ. 눈요기: 눈요기는 [눈뇨기]에서 알 수 있듯이 ‘뇨’처럼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정답: ②

문제 2) 표준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2)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35) 표준발음법(제4장 받침의 발음)
(p.478 ~ 481) p. 479, 481, 482, 485,489 >

① 풀꽃아[풀꼬다]

② 옷 한 벌[오탄벌]

③ 늪둥글다[넙똥글다]

④ 늪습니다[늑쌔습니다]

문제 2)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2)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35) 표준발음법(제4장 받침의 발음) (p.478 ~ 481)
p. 479, 481, 482, 485,489 >

① 풀꽃아[풀꼬다] (X) → [풀꼬차]

◆ 풀꽃은 [풀꼰]으로 발음되지만 뒤에 붙은 모음 ‘아’로 인해 연음되어 [풀꼬차]로 발
음된다.

② 옷 한 벌[오탄벌] (O)

◆ 표준발음법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ㄴㅎ, ㄹ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 놓고[노코] / 종던[조:턴] / 쌓지[싸치] / 많고[만:코] / 앓던[안턴] /
닿지[달치] >

[붙임 1] 받침 ‘ㄱ(ㄴ), ㄷ, ㅈ(ㄴㅈ)’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 각하[가카] / 먹히다[머키다] / 밝
히다[발키다] / 말형[마텅] / 좁히다[조피다] / 넓히다[넙피다] / 꽃히다[꼬치다] / 앓히다
[안치다] >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웃 한 별[오탄별]** / 낮 한때[나탄때] / 꽃 한 송이[꼬탄송이] / 술하다[수타다] >

◆ ‘웃[올]’은 ‘한’의 ‘ㅎ’과 결합하여 축약현상이 일어나 ‘ㅌ’으로 바뀌어 [오탄별]로 발음된다.

③ 넓둥글다[넙뚱글다] (O)

◆ 표준발음법 제4장(받침의 발음) 제10항 다만: 다만, ‘뽕-’은 자음 앞에서 [뽕]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1) 뽕다[뽕:따] / 뽕소[뽕:쏘] / 뽕지[뽕:찌] / 뽕는[뽕:는→뽕:는] / 뽕게[뽕:께] / 뽕고[뽕:꼬]

(2) 넙-죽하다[넙쭈카다] / **넙-둥글다[넙뚱글다]**

④ 늑습니다[늑쌔습니다] (O)

◆ 겹받침 ‘ㄹ, ㄴ,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늑쌔습니다]가 옳은 발음이다.

정답: ①

문제 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3)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58, 60, 74, 80, 82 >

거북아 거북아 / 머리를 내어 놓아라. / 만약 내어 놓지 않으면 / 굶고 구워 먹겠다.

-「구지가」-

- ① 향가 발생 이전의 고대시가이다.
- ② 환기, 명령, 가정의 어법을 지닌 주술적 노래이다.
- ③ 음악, 시가, 무용이 모두 어우러진 종합 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④ 고조선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순수 서정시가이다.

문제 3)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3)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58, 60, 74, 80, 82 >

◆ 구지가(龜旨歌): 구지봉(龜旨峯) 주위에 살던 구간(九干)과 그 백성들이 수로왕(首露王)을 맞기 위해서 부른 고대 가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 귀지가

① 향가 발생 이전의 고대시가이다. (O)

◆ 구지가는 향가 발생 이전의 고대시이라 말할 수 있다.

◆ 향가: 향찰(鄉札)로 기록한 신라 때의 노래. 민요적·불교적인 내용으로, 작가층은 승려·귀족·평민에 걸쳐 다양하다. 4구체, 8구체, 10구체의 세 가지 형식이 있다. 현재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11수로 모두 25수가 전한다.

② 환기, 명령, 가정의 어법을 지닌 주술적 노래이다. (O)

◆ 거북아 거북아 - 거북이를 불러 주의(注意)를 환기(喚起)함.

cf. 환기(喚起):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 머리를 내어라. - 머리를 밖으로 빼라고 명령(命令)함.

◆ 조건: 내놓지 않으면 - 조건문을 사용하여 조건(條件)을 나타냄.

◆ 위협: 구워서 먹으리. - 구워 먹겠다고 위협(威脅)함.

③ 음악, 시가, 무용이 모두 어우러진 종합 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 (O)

◆ 구지가는 음악, 시가, 무용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고조선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순수 서정시가이다. (X)

◆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작품은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이다.

◆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고조선 때의 노래. 백수(白首) 광부(狂夫)가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를 한탄하면서 불렀는데, 이를 광리자고(霍里子高)가 듣고 그의 아내 여옥(麗玉)에게 들려주자, 여옥이 공후(箜篌)를 연주하면서 곡조를 만들어 불렀다는 기록이 중국 진(晉)나라 최표(崔豹)의 《고금주》에 전한다. 작자를 여옥으로 보는 설도 있다. = 공후인

정답: ④

문제 4) 밑줄 친 단위성 의존 명사의 수량이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4)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17) 순수 어휘 (p.228 ~ 262) p. 107, 235, 243, 246, 247, 253, 258 >

① 고등어 한 손 < 양말 한 타 < 바늘 한 짚 < 북어 한 켤

② 고등어 한 손 < 양말 한 타 < 북어 한 켤 < 바늘 한 짚

③ 고등어 한 손 < 북어 한 켤 < 양말 한 타 < 바늘 한 짚

④ 고등어 한 손 < 바늘 한 짚 < 양말 한 타 < 북어 한 켤

문제 4)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4)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17) 순수 어휘 (p.228 ~ 262) p. 107, 235, 243, 246, 247, 253, 258 >

② 고등어 한 손(2마리) < 양말 한 타(12개) < 북어 한 켤(20마리) < 바늘 한 짚(24개)

정답: ②

★ 수량을 나타내는 어휘 정리 ★

단위	의미	☺영보이 암기tip)
가리	곡식이나 장작 따위의 더미를 세는 단위. 한 가리는 스무 단	20-가리
-가웃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된 단위의 절반 정도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절반-가웃
갓	굴비, 비웃 따위나 고비, 고사리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갓은 굴비·비웃 따위 열 마리, 또는 고비·고사리 따위 열 모숨을 한 줄로 엮은 것을 이른다.	10-갓
강다리	쪼갠 장작을 묶어 세는 단위. 한 강다리는 쪼갠 장작 백 개비를 이른다.	100-강다리
거리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오십 개	50-거리
고리	소주를 사발에 담은 것을 묶어 세는 단위. 한 고리는 소주 열 사발을 이른다.	10-고리

꾸러미	달걀 열 개를 묶어 세는 단위.	10-꾸러미
담불	벼를 백 섬씩 묶어 세는 단위.	100-담불
동	물건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동은 먹 열 정, 붓 열 자루, 생강 열 절, 파륙 50 필, 백지 100권, 꽃감 100접, 벚짚 100단, 조기 1,000마리, 비웃 2,000마리	먹, 붓-10-동 생강-10-동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u>열 마리씩 두 줄</u> 로 엮은 것. /고사리 따위의 산나물을 열 모숨 정도로 엮은 것.	20-두름
못	생선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못은 생선 <u>열 마리</u> 를 이른다. / 미역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못은 미역 열 장을 이른다.	10-못
섬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	
손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조기, 고등어, 배추 따위 <u>한 손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합한 것</u> 을 이르고, 미나리나 파 따위 한 손은 한 줌 분량을 이른다. < 고등어 따위는 <u>도</u> 마리, 배추 따위는 <u>도</u> 통 >	2-손
쌈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 한 쌈은 바늘 <u>스물네 개</u> 를 이른다.	쌈-24
우리	기와를 세는 단위. 한 우리는 <u>기와 2천 장</u> 이다	우리-2000
접	채소나 과일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접은 채소나 과일 <u>백 개</u>	100-접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u>스무 첩</u>	20-제
죽	옷, 그릇 따위의 <u>열 벌</u> 을 묶어 이르는 말. 옷, 그릇 따위의 <u>열 벌</u> 을 묶어 세는 단위.	죽-10
축	오징어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축은 오징어 <u>스무 마리</u>	20-축
쾌	복어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쾌는 복어 <u>스무 마리</u>	20-쾌

문제 5) <보기>에 제시된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5)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29) 작품의 배경 (401 ~ 403) p. 28, 401, 403, 414 >

ㄱ. 최인훈의 「광장」	ㄴ.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ㄷ. 한강의 「소년이 온다」	ㄹ. 염상섭의 「삼대」

- ① ㄱ→ㄷ→ㄹ→ㄴ ② ㄱ→ㄹ→ㄷ→ㄴ
③ ㄹ→ㄱ→ㄴ→ㄷ ④ ㄹ→ㄴ→ㄱ→ㄷ

문제 5)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5)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29) 작품의 배경 (401 ~ 403) p. 28, 401, 403, 414 >

③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O)

ㄹ. 염상섭의 「삼대」(1931)

◆ 염상섭의 장편 소설. 주인공 덕기와 조부, 아버지의 삼대를 다루면서 3·1 운동을 전후한 우리나라의 혼란하고 암담한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1931년에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ㄱ. 최인훈의 「광장」(1960)

◆ 최인훈(崔仁勳)이 지은 장편 소설. 주인공 이명준을 통하여 남북 간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고통받고 갈등하는 지식인상을 보여 준 작품으로, 우리나라 현대 소설에서 금기시되어 온 이데올로기와 한국전쟁 후 남북 분단의 비극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ㄴ.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1985)

◆ 황석영이 베트남 전쟁(1960~1975)의 숨겨진 본질을 다룬 작품이다.

ㄷ.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

◆ 시인이자 소설가 한강이 지은 장편소설로 5·18(1980)부터 10일간 있었던 광주민중화운동의 현장상황을 담고 있다.

정답: ③

문제 6) <보기>에서 설명한 문학 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6)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34, 35, 49, 86, >

< 보기 >

조선 시대 시가문학을 대표하는 갈래이다. 고려 후기에 성립되었지만, 조선 시대의 새로운 지도 이념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더욱 융성해졌다. 3장 6구의 절제된 형식과 유장한 기품을 특징으로 하고, 여러 장을 한 편에 담은 연장체 형식으로도 창작되었다.

① 「한림별곡」 ② 「월인천강지곡」 ③ 「상춘곡」 ④ 「도산십이곡」

문제 6)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6)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34, 35, 49, 86, >

◆ 위 보기는 시조에 대한 설명이다.

◆ 시조: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음보의 기본 형태를 가진 평시조와 파격의 엇시조, 사설시조로 나뉜다.

① 「한림별곡」: 고려 고종 때에 한림(翰林)의 학자들이 지은 경기체가. 무신 집권하에서 문인들의 향락적·유흥적 생활 감정을 읊은 것으로, 시부(詩賦)·서적·명필·명주(名酒)·화

휼·누각·추천(鞦韆) 따위를 소재로 하였다. 현전하는 경기체가 가운데 가장 먼저 창작된 작품으로, 한문 가사는 《고려사》에, 한글·한문 가사는 《악장가사》에 실려 있다.

◆ 경기체가: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던 시가 장르. 주로 양반 귀족들의 향락적인 생활 양식과 그들의 심상(心像)을 읊었다. 일반적으로 각 연(聯)은 전소절과 후소절로 나뉘며, 각 소절의 끝에 ‘경기하여(景幾何如)’ 또는 ‘경(景)그 엇더히니잇고’라는 구절이 반복된다. <한림별곡>, <죽계별곡>, <상대별곡> 따위가 있다.

② 「월인천강지곡」: 월인천강지곡은 악장으로 조선 세종 31년(1449)에 세종이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양하여 지은 노래를 실은 책. 《월인석보》에 따르면 500여 수의 노래로 추정되나 그 일부만을 알 따름이고 오늘날은 상권(上卷) 한 권만 전한다. 전해지는 책은 국보 제320호로 정식 명칭은 ‘월인천강지곡 권상(月印千江之曲 卷上)’이다.

◆ 악장: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태의 하나. 나라의 제전(祭典)이나 연례(宴禮)와 같은 공식 행사 때 궁중 음악에 맞추어 불렀으며, 주로 조선 왕조의 개국과 번영을 송축하였다.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문덕곡>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③ 「상춘곡」: 조선 성종 때에, 문인 정극인이 지은 가사(歌辭).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이며, 자연에 파묻힌 생활 속에서 봄날의 경치를 찬탄한 내용으로, 《불우헌집》에 실려 있다.

◆ 가사: 조선 초기에 나타난, 시가와 산문 중간 형태의 문학. 형식은 주로 4음보의 율문(律文)으로, 3·4조 또는 4·4조를 기조로 하며, 행수(行數)에는 제한이 없다.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인 것을 정격(正格), 그렇지 않은 것을 변격(變格)이라고 한다.

④ 「도산십이곡」 (O): 조선 명종 20년(1565)에 퇴계 이황이 지은 연시조. 65세 때의 작품으로 모두 12수로 되어 있으며 전 6곡은 언지(言志), 후 6곡은 언학(言學)이라 하였다.

cf. 연시조: 두 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어져 있는 시조. 최초의 연시조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비롯하여 이황의 <도산십이곡>, 이이의 <고산구곡가>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정답: ④

문제 7)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7)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영보이 포인트 #12) 문맥상 의미 (p.198 ~ 211) 상세히 정리 >

< 보기 > 현재 그녀는 건강이 매우 좋다.

- ① 그녀의 성격은 더할 수 없이 좋다.
- ② 서울 간 길에 한 번 뵈올 땐 혈색이 좋으셨는데?
- ③ 다음 주 토요일은 결혼식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날이다.
- ④ 대화를 하는 그의 말투는 기분이 상쾌할 정도로 좋았다.

문제 7)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7)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영보이 포인트 #12) 본맥상 의미 (p.198 ~ 211) 상세히 정리 >

< 보기 > 현재 그녀는 건강이 매우 좋다.

◆ 좋다[조:타]: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 상태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다.

◆ ‘좋다’는 다의어로 사전에 하나의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동음이의어는 연관성이 없고 사전에 다른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

① 그녀의 성격은 더할 수 없이 좋다.

◆ 좋다: 성품이나 인격 따위가 원만하거나 선하다.

② 서울 간 길에 한 번 비올 땐 혈색이 좋으셨는데? (O)

◆ 좋다: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 상태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다.

③ 다음 주 토요일은 결혼식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날이다.

◆ 좋다: 날짜나 기회 따위가 상서롭다.

④ 대화를 하는 그의 말투는 기분이 상쾌할 정도로 좋았다.

◆ 좋다: 말씨나 태도 따위가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아니할 만큼 부드럽다.

정답: ②

문제 8) <보기>의 밑줄 친 ㉠ ~ ㉣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8)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 문학(시) (p.555 ~ 586) p. 567 >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갈게 찢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칩범을 따라 칩범을 따라 칩범을 만나면 칩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뽀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① ㉠ ② ㉡ ③ ㉢ ④ ㉣

문제 8)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8)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p.555 ~ 586) p. 567 >

◆ 박두진의 「해」: 박두진이 지은 시로 1945년 5월 '상아탑'에 발표되었다. 해를 중심적인 소재로 하여 암울하고 어두운 세계를 벗어난 평화롭고 광명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 '㉠ 해, ㉡ 청산, ㉢ 양지' 모두 긍정적이고 이상향을 담은 시어이다.

㉡ '㉠ 골짜기'는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이고 암울함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정답: ㉡

문제 9)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9)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23) 올바른 국어 어법 (p.280 ~ 322) p. 293 >

- ① 남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 돼라는 아버지의 유언
- ② 존경 받는 사람이 되었다.
- ③ 남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 돼라.
- ④ 존경 받는 사람이 되고 있다.

문제 9)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9)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23) 올바른 국어 어법 (p.280 ~ 322) p. 293 >

① 남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 돼라는 아버지의 유언 (X) → 되라는
◆ '돼라'에서 '되어라'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되라'가 옳다.

- ② 존경 받는 사람이 되었다. (O)
◆ 모음과 결합하였으므로 '되었다', '됐다' 모두 옳다.
- ③ 남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 돼라. (O)
◆ '돼라'는 '되어라'의 축약형으로 둘 다 옳다.
- ④ 존경 받는 사람이 되고 있다. (O)
◆ '되고'는 '되어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돼고'가 아니라 '되고'가 옳다.

정답: ①

문제 10) <보기>의 주된 설명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0)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6) 글의 서술 방식 (p.121 ~ 131) p. 121, 122, 123, 125 >

< 보기 >

우리는 좋지 않은 사람을 곤잘 동물에 비유한다. 욕에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동물을 나쁘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인간이 동물보다 좋은(선한) 것일까? 베르그는 오히려 “나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를 부정한다. 인간은 인간을 속이지만 동물은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인간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동물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인다. 인간보다 더 잔인한 동물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필요 없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일을 인간 외 어느 동물이 한단 말인가?

- ① 교사의 자기계발, 학부모의 응원, 교육 당국의 지원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선한 재료, 적절한 조리법, 요리사의 정성이 합쳐져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 ② 의미를 지닌 부호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을 기호라고 한다. 수학, 신호등, 언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꿀이 있음을 알리는 벌들의 춤사위도 기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핵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이 전부여서 세포라고 할 수 없다.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증식할 수 있는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살아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야만 번식을 할 수 있다.
- ④ 나물로 즐겨 먹는 고사리는 꽃도 피지 않고 씨앗도 만들지 않는다. 고사리는 흠씨라고도 하는 포자로 번식한다. 고사리와 고비 등을 양치식물이라 하는데 생김새가 양(羊)의 이빨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문제 10)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0)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6) 글의 서술 방식 (p.121 ~ 131) p. 121, 122, 123, 125 >

◆ <보기> 에서 ‘인간은 인간을 속이지만 동물은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로 보아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① 교사의 자기계발, 학부모의 응원, 교육 당국의 지원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선한 재료, 적절한 조리법, 요리사의 정성이 합쳐져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 ‘이는 신선한 재료, 적절한 조리법, 요리사의 정성이 합쳐져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로 보아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② 의미를 지닌 부호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을 기호라고 한다. 수학, 신호등, 언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꿀이 있음을 알리는 벌들의 춤사위도 기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의’, ‘분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핵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이 전부여서 세포라고 할 수 없다.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증식할 수 있는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야만 번식을 할 수 있다. (O)

◆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로 보아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나물로 즐겨 먹는 고사리는 꽃도 피지 않고 씨앗도 만들지 않는다. 고사리는 홀씨라고도 하는 포자로 번식한다. 고사리와 고비 등을 양치식물이라 하는데 생김새가 양(羊)의 이빨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고사리와 고비 등을 양치식물이라 하는데'로 보아 '분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답: ③

문제 11) <보기>에서 설명한 소설의 시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 11)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40) 현대문학(소설) (p.548 ~ 544) p. 548, 549 >

< 보기 > 소설 속의 한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부수적인 인물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말한다. 주인공의 환경이나 행동 등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① 일인칭 주인공 시점

② 일인칭 관찰자 시점

③ 전지적 작가 시점

④ 작가 관찰자 시점

문제 11)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1)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40) 현대문학(소설) (p.548 ~ 544) p. 548, 549 >

① 일인칭 주인공 시점: 이야기에 중심적 인물로 등장하는 '나'가 보고 듣고 겪은 바를 서술하고 설명하는 방식.

◆ 예: 김유정의 <봄봄>, 이상의 <날개>

② 일인칭 관찰자 시점 (O): 이야기에 부차적 인물로 등장하는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설명하는 방식. 소설 속의 한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부수적인 인물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말한다. 주인공의 환경이나 행동 등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 예: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현진건의 <빈처>

③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소설 바깥에서 전지적인 신처럼 각 인물의 내면을 관통하며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듯이 서술하는 방식.

◆ 예: 염상섭의 <삼대>, <두 파산>, 이광수의 <무정>

④ 작가 관찰자 시점: 1인칭 혹은 3인칭의 화자가 관찰자처럼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

◆ 예: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 황순원의 <소나기>

정답: ②

문제 12) 조선 시대 대표적 문사(文士) 송강 정철이 창작한 가사가 아닌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2)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9, 27, 30, 40, 41, 42, 43, 55, 65, 81 >

- ① 「속미인곡」 ② 「면앙정가」 ③ 「관동별곡」 ④ 「사미인곡」

문제 12)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2)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9, 27, 30, 40, 41, 42, 43, 55, 65, 81 >

◆ 송강 정철: 조선 명종·선조 때의 문신·시인(1536~1593).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가사 문학의 대가로 국문학사상 중요한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따위의 가사 작품과 시조 작품을 남겼다. 저서에 《송강집》과 《송강가사》가 있다.

① 정철의 「속미인곡」: 조선 선조 때(1552~1608)에, 정철이 지은 가사. 작가가 참소를 받아 창평에 내려가 있으면서 지은 것으로, 임금을 천상에서 인연이 있었던 연인으로 설정하고 그 임을 잃고 사모하는 여인의 심정을 두 선녀의 대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송강가사》에 실려 있다.

② 송순의 「면앙정가」: 조선 중종 때(1488~1544) 송순이 지은 가사(歌辭). 작자가 만년에 고향인 전라남도 담양에 면앙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거하면서 주위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심정을 읊었다. 《면앙집》에 한역가가 전한다.

◆ 송순: 조선 명종 때의 문신·시인(1493~1583). 자는 수초(遂初)·성지(誠之). 호는 면앙정(旹仰亭)·기촌(企村). 우참찬을 지냈으며, 작품에 <면앙정가>, 저서에 《기촌집(企村集)》 따위가 있다.

③ 정철의 「관동별곡」: 조선 선조 때에 송강 정철이 지은 기행 가사. 작자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 팔경을 돌아보면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심정을 읊은 것으로, 《송강가사》에 그 내용이 전한다.

cf. 안축의 「관동별곡」: 고려 충숙왕 때(1294~1339)에 근재 안축이 지은 경기체가. 작자가 강원도 순무사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관동 지방의 절경을 보고 읊은 것으로, 모두 8장으로 되어 있다. 《근재집》에 그 내용이 전한다.

④ 정철의 「사미인곡」: 조선 선조 18년(1585)에 정철이 지은 가사. 작자가 관직에서 밀려나 4년 동안 전라남도 창평에서 지내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운 정을 간곡하게 읊은 작품으로 모두 126구로 되어 있으며, 《송강가사》에 실려 전한다.

정답: ②

문제 13) <보기>의 ㉠~㉢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3)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초대박 적중: p. 18, 75, 224, 225, 245 >

물속에 잠긴 막대기는 굽어보이지만 실제로 굽은 것은 아니다. 이때 나무가 굽어보이는 것은 우리의 착각 때문도 아니고 눈에 이상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나무는 정말 굽어보이는 것이다. 분명히 굽어보인다는 점과 사실은 굽지 않았다는 점 사이의 (㉠)은 빛의 굴절 이론을 통해서 해명된다.

굽어보이는 나무도 우리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현실이고, 실제로는 굽지 않은 나무도 하나의 현실이다. 전자를 우리는 사물이나 사태의 보임새, 즉 (㉡)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사물이나 사태의 참모습, 즉 (㉢)이라고 부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① 葛藤 | 現象 | 本質 | ② 葛藤 | 假象 | 根本 |
| ③ 矛盾 | 現象 | 本質 | ④ 矛盾 | 假象 | 根本 |

문제 13)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3)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초대박 적중: p. 18, 75, 224, 225, 245 >

① 葛藤 現象 本質

◆ 갈등(葛藤): 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 현상(現象):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 본질(本質):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② 葛藤 假象 根本

◆ 갈등(葛藤): 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 가상(假象): 주관적으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

◆ 근본(根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③ 矛盾(모순) 現象(현상) 本質(본질)

◆ ‘분명히 굽어보인다는 점과 사실은 굽지 않았다는 점’로 보아 모순(矛盾)이 알맞다.

◆ 모순(矛盾):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 하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 하여,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사물이나 사태의 보임새’로 ‘현상(現象)’보아 알맞다.

◆ 현상(現象):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 ‘사물이나 사태의 참모습’로 보아 ‘본질(本質)’이 알맞다.

◆ 본질(本質):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④ 矛盾 假象 根本

◆ 모순(矛盾):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 하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 하여,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가상(假象): 주관적으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

◆ 근본(根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정답: ③

문제 14)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 14)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34) 품사론 (p.450 ~ 477) p. 451, 452, 457, 496 >

- ① 이 물건은 시장에서 사 왔다.
- ②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③ 이에서 어찌 더 나쁠 수가 있겠어요?
- ④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문제 14)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4)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34) 품사론 (p.450 ~ 477) p. 451, 452, 457, 496 >

◆ 문장 성분: 문장을 구성하는 기능적 단위.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관형어·부사어·독립어 따위가 있다.

◆ 부사어: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 부사와 부사의 구실을 하는 단어·어절·관용어, 그리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형용사가 어미 ‘-게’ 따위로 활용한 말, 부사성 의존 명사구 따위가 있다.

- ① 이 물건은 시장에서(부사어) 사 왔다.
- ② 고마운 마음에서(부사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 ③ 이에서(부사어) 어찌 더 나쁠 수가 있겠어요?

④ 정부에서(주어)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 이 문장은 ‘정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로 다시 쓸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로 보아 ‘주어’로 쓰였다.

정답: ④

문제 15) <보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어 규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5)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영보이 포인트 #33) 표준어 (p.432 ~ 449) >

< 보기 > 강남콩, 고삿, 사글세

- ①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 ②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 ③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④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문제 15)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5)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 ☺영보이 포인트 #33) 표준어 (p.432 ~ 449) >

◆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강남콩	강남콩	
고삿	고삿	겉~, 속~.
사글세	삭월세	‘월세’는 표준어임.
울력성당	위력성당	떼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

①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O)

◆ 위 해설 참조

②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절 제1장 제5항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갈비	가리	~구이, ~찜, 갈빗-대.
갓모	갈모	1. 사기 만드는 물레 밑 고리. 2. '갈모'는 갓 위에 쓰는, 유지로 만든 우비.
굴젓	구젓	
말걸	말곶	
물수란	물수랄	
밀뜨리다	미뜨리다	

적이	저으기	적이-나, 적이나-하면.
휴지	수지	

③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구려	-구료	
각쟁이	각정이	1. 서울~, 알~, 찰~. 2.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은 '각정이'임.
나무라다	나무래다	
미수	미시	미숫-가루.
바라다	바래다	'바람[所望]'은 비표준어임.
상추	상치	~쌈.
시러베아들	실업의아들	
주책	주착	←主着. ~망나니, ~없다.

④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4절 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거든그리다	거둥그리다	1.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 2. 작은말은 '가든-그리다'임.
구어박다	구워박다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지내다.
귀고리	귀엣고리	
귀뿔	귀털	
귀지	귀에지	
까딱하면	까땡하면	
꼭두각시	꼭둑각시	
내색	나색	감정이 나타나는 얼굴빛.

정답: ①

문제 16) <보기>의 ㉠에 들어갈 접속 부사로 가장 옳은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 16)

< 보기 >

격분의 물결은 사람들의 주의를 동원하고 묶어내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매우 유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까닭에 공적인 논의와 공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격분의 물결은 그러기에는 통제하기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안정하며, 일정한 형태도 없이 쉽게 사라져버린다. 격분의 물결은 갑자기 불어났다가 또 이에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소멸한다. 여기서는 공적 논의를 위해 필수적인 안정성, 항상성, 연속성을 찾아볼 수 없다. (㉠) 격분의 물결은 안정적인 논의의 맥락 속에 통합되지 못한다. 격분의 물결

은 종종 아주 낮은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밖에 지니지 않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격분 사회는 스캔들의 사회다. 이런 사회에는 침착함, 자제력이 없다. 격분의 물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항기, 히스테리, 완고함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대화도, 어떤 논의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격분 속에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염려의 구조를 갖춘 안정적인 우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른바 분개한 시민의 염려라는 것도 사회 전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자신에 대한 염려일 뿐이다. (㉞) 그러한 염려는 금세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다.

-한병철, 「투명사회」중에서-

- ① 그런데 ② 그리고 ③ 따라서 ④ 하지만

문제 16)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6)

③ 따라서 (O):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

◆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안정하며, 일정한 형태도 없이 쉽게 사라져버린다. 격분의 물결은 갑자기 불어났다가 또 이에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소멸한다. 여기서는 공적 논의를 위해 필수적인 안정성, 항상성, 연속성을 찾아볼 수 없다.’로 보아 ‘따라서’가 적절하다. 또한 ‘게다가 격분 속에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염려의 구조를 갖춘 안정적인 우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로 보아 역시 ‘따라서’가 적절하다.

정답: ③

문제 17) <보기>에서 설명한 시의 표현방법이 적용된 시구로 가장 옳은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7)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p.555 ~ 586) p. 559 >

< 보기 >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가장하거나 위장하는 것이다. 즉 본래의 의도를 숨기고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표면의미(표현)와 이면의미(의도) 사이에 괴리와 모순을 통해 시적 진실을 전달하는 표현방법이다.

- 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②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
③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사람을 다스린다 -김광섭, 「산」
④ 나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죽어도 아니 눈물/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문제 17)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7)<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41) 현대문학(시) (p.555 ~ 586) p. 559 >

◆ 위 보기는 반어법에 대한 설명이다.

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같이'로 보아 '직유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직유법: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수사법. 예를 들면, '그는 여우처럼 교활하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따위가 있다.

②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

◆ '그, 나에게로 와서'로 보아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꽃은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된다고 작가는 생각하고 있다.

◆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③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사람을 다스린다 -김광섭, 「산」

◆ '~법으로 ~법으로'로 보아 '반복법'이 사용되었고, '사람을 다스린다'로 보아 활유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예를 들면 '나를 에워싸는 산', '울음 우는 바다' 따위이다.

④ 나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죽어도 아니 눈물/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 님이 가실 때에는 자연히 눈물이 흐르게 뻔한데,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답: ④

문제 18)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연결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8) < 2020영보이 한자 고사성어편 초대박 적중: p. 51, 58, 80, 85, 86, 117, 123, 124, 129, 135, 187, 195, 196, 210, 219, 220, 312 >

- ① 경국지색(傾國之色)-경중미인(鏡中美人)
- ② 지록위마(指鹿爲馬)-지란지화(芝蘭之化)
- ③ 목불식정(目不識丁)-목불인견(目不忍見)
- ④ 폐의파관(敝衣破冠) -폐포파립(敝袍破笠)

문제 18)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8) < 2020영보이 한자 고사성어편 초대박 적중: p. 51, 58, 80, 85, 86, 117, 123, 124, 129, 135, 187, 195, 196, 210, 219, 220, 312 >

① 경국지색(傾國之色)-경중미인(鏡中美人)

1) 경국지색(傾國之色): 傾(기울 경) 國(나라 국) 之(갈 지) 色(빛 색)

◆ 의미: 임금이 혹하여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의 미인이라는 뜻으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을 이르는 말.

2) 경중미인(鏡中美人): 鏡(거울 경) 中(가운데 중) 美(아름다울 미) 人(사람 인)

◆ 의미: 거울에 비친 미인이라는 뜻으로, 실속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지록위마(指鹿爲馬)-지란지화(芝蘭之化)

1) 지록위마(指鹿爲馬): 指(가리킬지) 鹿(사슴 록(녹)) 爲(할 위) 馬(말 마)

◆ 의미: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 중국 진(秦)나라의 조고(趙高)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하여 보고자 황제 호해(胡亥)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지란지화(芝蘭之化): 芝(지초 지) 蘭(난초 란(난)) 之(갈 지) 化(될 화, 잘못 와)

◆ 의미: 지초와 난초의 감화라는 뜻으로, 좋은 친구와 사귀면 자연히 그 아름다운 덕에 감화됨을 이르는 말.

③ 목불식정(目不識丁)-목불인견(目不忍見)

1) 목불식정(目不識丁): 目(눈 목) 不(아닐 불) 識(알 식) 丁(고무래 정/장정 정).

◆ 의미: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

2) 목불인견(目不忍見): 目(눈 목) 不(아닐 불) 忍(참을 인) 見(볼 견)

◆ 의미: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

④ 폐의파관(敝衣破冠) - 폐포파립(敝袍破笠) (O)

1) 폐의파관(敝衣破冠): 敝(해질 폐) 衣(옷 의) 破(깨뜨릴 파, 무너질 피) 冠(갓 관)

◆ 의미: 해어진 옷과 부서진 갓이란 뜻으로, 초라한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폐포파립(敝袍破笠): 敝(해질 폐) 袍(도포 포) 破(깨뜨릴 파) 笠(삿갓 립(입))

◆ 의미: 해어진 옷과 부서진 갓이란 뜻으로, 초라한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답: ④

문제 19)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하나는?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9)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37) 통사론 + 기타 품사론 (p.496 ~ 512) p. 473, 497, 502, 505 >

① 그림이 실물과 같다.

② 나는 학생이 아니다.

③ 지호가 종을 올렸다.

④ 길이 매우 넓다.

문제 19)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19)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37) 통사론 + 기타 품사론 (p.496 ~ 512) p. 473, 497, 502, 505 >

① 그림이 실물과 같다. (두 자리)

(주어) (필수 부사어)

② 나는 학생이 아니다. (두 자리)

(주어) (보어)

③ 지호가 종을 올렸다. (두 자리)

(주어) (목적어)

④ 길이 매우 넓다. (한 자리)

(주어)

◆ 이 문장에서 ‘매우’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므로 ‘넓다’는 주어만 필요할 뿐이어 한 자리 서술어가 된다.

정답: ④

문제 20) <보기>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단어의 개수는?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20)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26) 외래어 표기법 (p.362 ~ 375) p. 363, 365, 366, 367, 368, 371, 372 >

< 보기 >

로봇(robot), 배지(badge), 타깃(target), 텔레비전(television), 플룻(flute)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 20) 정답 및 해설 (2020서울시 1회 9급 B책형 문20)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영보이 포인트 #26) 외래어 표기법 (p.362 ~ 375) p. 363, 365, 366, 367, 368, 371, 372 >

◆ 로봇(robot) (O)

☺영보이 암기tip) 강통로~~봇~~은 배터리를 배터지게 먹고 ~~봇~~물 터지듯 말을 하고 있다. < 로~~봇~~ - ~~봇~~물 터지듯 >

◆ 배지(badge) (O)

☺영보이 암기tip) 국회의원 ~~배지~~ 옆에 있는 배가 나주~~배지~~? 맛 좋군, 남남. < 국회의원 ~~배지~~ 옆에 - 나주~~배지~~? >

◆ 타깃(target) (O)

☺영보이 암기tip) 초점이 흐려지고 있으니 옷~~깃~~을 타~~깃~~으로 잡아라. < 옷~~깃~~ - 타~~깃~~ >

◆ 텔레비전(television) (O)

☺영보이 암기tip) 텔레비~~전~~ 드라마 중 ~~전~~원일기가 제일 재미있다.< 텔레비~~전~~ - ~~전~~원일기 >

◆ 플룻(flute) (X) → 플루트

☺영보이 암기tip) 플루트를 불고 있는데 동생이 수학문제 중 루트 문제를 물어보았다. < 플루트 - 루트 문제 >

정답:①

- 영보이 저서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고사성어 편”

◆ [2020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합격노트”

◆ [2020영보이](#) 공무원 고사성어(故事成語) “합격노트”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21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21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2021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

2020서울시 제1회 9급 국어 B책형 재미있고 아주 자세한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